

201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우수 도의원 선정 기자회견

- 일시 : 2010년 12월 1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경기도의회 브리핑룸
- 진행순서
 - . 행정사무감사 방청활동의 취지
 - . 우수 도의원 및 행정사무감사 종합평가 발표
 - . 질의 및 응답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기민주언론시민연합,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시민사회포럼,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자주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녹색자주경기연대, YMCA경기도협의회,
참교육학부모회 경기지부, 민예중 경기지회)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선정한 201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 도의원 및 우수 상임위원회

- ▶ 기획위원회 : 김주삼(민, 군포2), 임병택(민, 시흥1)
- ▶ 경제투자위원회 : 금종례(한, 화성2), 김영환(민, 고양7)
- ▶ 행정자치위원회 : 서진웅(민, 부천4), 조양민(한, 용인7)
- ▶ 문화관광위원회 : 김달수(민, 고양8), 유미경(국참, 비례)
-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 배수문(민, 과천2), 원미정(민, 안산8)
- ▶ 건설교통위원회 : 민경선(민, 고양3), 홍정석(민, 비례)
- ▶ 도시환경위원회 : 이재준(민, 고양2), 최재연(진보, 고양1)
- ▶ 가족여성위원회 : 윤은숙(민, 성남4), 조광주(민, 성남3)
- ▶ 교육위원회 : 이상훈(민, 부천1), 최철환(교육, 경기1)

◇ 우수 상임위원회 : 가족여성위원회(위원장 김유임)

* 경기도의회는 한나라당 42명, 민주당 76명, 국민참여당 2명, 민주노동당 1명, 진보신당 1명, 무소속 2명, 교육의원 7명 등 총 131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우수의원은 11개 상임위원회 중 의회운영위원회와 농림수산위원회를 제외한 9개 상임위원회(상임위원장은 평가대상에서 제외)에서 한나라당 2명, 민주당 13명, 국민참여당 1명, 진보신당 1명, 교육의원 1명 총 18명 선정됨(기입한 순서는 순위가 아니라 가나다 순으로 정리).

** 농림수산위원회는 방청 책임단체가 불가피한 단체사정(농성 등)으로 방청을 하지 못해 평가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어서 평가에서 제외함.

2010년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경기도의원 평가 활동보고서

1. 취지

- 2001년부터 경기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의 조직적으로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방청 및 평가를 진행하다가 2004년, 2008년 우수 도의원 선정에 이어 2010년에도 진행된 활동
- 제8대 경기도의회가 새롭게 개원되어 경기도정에 대한 경기도의회의 제대로된 견제와 감시 역할 기대
- 또한 처음 맞이하는 민선5기 김문수 도지사의 첫 행정사무감사로 주요 도정현안에 대한 시사비비를 가려 정책적 개선과 대안이 모색되는 정책감사로 전환 유도

2. 준비경과

- 2010년 1월 20일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정기총회에서 사업수립
- 2010년 2월 ~ 8월 : 경기도정 및 의정 모니터 활동
- 2010년 9월 7일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운영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 확정
- 2010년 9월 27일 : 2010년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모니터 활동 기본계획 수립
(1차회의)
- 2010년 10월 15일 : 평가지표 점검(2차회의)
- 2010년 10월 25일 : 방청활동 방식 점검(3차회의)
- 2010년 11월 4일 : 행정사무감사 방청일정 점검 및 평가지표 최종 검토(4차회의)
- 2010년 11월 9일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방청 및 평가계획 발표 기자회견,
행정사무감사 방청단원들 대상으로 교육진행
- 2010년 11월 15일 ~ 24일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 방청 모니터 활동
- 2010년 11월 29일 :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우수 도의원 선정 회의
- 2010년 12월 1일 : 2010년 행정사무감사 평가 및 우수 도의원 선정 기자회견

3. 방청 개요

- 활동기간 : 경기도의회 제255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행정사무감사 기간
(2010년 11월 15일 ~ 11월 24일, 10일간)
- 활동주체 : 경기도정참여단 30여명(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12개 단체 소속 활동가,

회원, 일반시민 등)

○ 주요 활동내용 :

- 2인 1조를 원칙으로 각 상임위원회 방청활동(의회운영위원회, 농림수산위원회 제외)
- 각 상임위 활동 방청 기록 및 평가지표에 따른 배점
- 2010년 행정사무감사 총평 및 우수 도의원 선정 및 발표(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 제외)

4. 방청의 일반적 현황

○ 방청인원 :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 소속 단체별로 각 상임위원회를 맡아서 30여명으로 전체적으로 실제 방청인원은 100여명 진행

○ 방청현황 : 상임위원회별로 2일 이상 방청을 원칙으로 하여 진행

- 기획위원회 : 7일중 4일 / - 경제투자위원회 : 6일중 5일
- 행정자치위원회 : 8일중 4일 / - 문화관광위원회 : 6일중 3일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 7일중 5일 / - 건설교통위원회 : 7일중 4일
- 도시환경위원회 : 6일중 5일 / - 가족여성위원회 : 6일중 5일
- 교육위원회 : 7일중 6일

** 실제 행정사무감사 진행한 총 60일중 41일로 68.3% 방청

5. 평가 및 선정 결과

1) 의원 및 위원회 평가 결과

- ▶ 기획위원회 : 김주삼(민,군포2), 임병택(민,시흥1)
- ▶ 경제투자위원회 : 금중례(한,화성2), 김영환(민,고양7)
- ▶ 행정자치위원회 : 서진웅(민,부천4), 조양민(한,용인7)
- ▶ 문화관광위원회 : 김달수(민,고양8), 유미경(국참,비례)
- ▶ 보건복지공보위원회 : 배수문(민,과천2), 원미정(민,안산8)
- ▶ 건설교통위원회 : 민경선(민,고양3), 홍정석(민,비례)
- ▶ 도시환경위원회 : 이재준(민,고양2), 최재연(진보,고양1)
- ▶ 가족여성위원회 : 윤은숙(민,성남4), 조광주(민,성남3)
- ▶ 교육위원회 : 이상훈(민,부천1), 최철환(교육,경기1)

◇ 우수 상임위원회 : 가족여성위원회(위원장 김유임)

○ 선정된 의원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사유에 대해 개별적 평가를 기술하지 않았으며 평가 지표에 근거하여 총평에서 다루고 있는 긍정적 평가에 대부분 우수의원들이 종합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판단해도 무방함.

2) 평가형태 및 결과처리

○ 평가는 정량평가와 정성평가를 복합적으로 사용함.

○ 기본적으로 각 상임위원회의 의원을 상대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였으며, 전체 의원에 대한 절대평가 방식은 배제함.

○ 의원평가 기준은 정량평가를 개인일반으로 참여성실, 태도진지, 공익대표와 개인전문성은 사전분석, 질의수준, 피감기관 부문지식, 정책대안 등 7개 항목의 평가지표에 따른 70점 만점으로 배점하여 방청단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계산하였으며 정성평가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경기도정참여단 실무책임자들이 언론 보도내용, 방청보고서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30점 만점으로 배점하여 최종 각 상임위원회별로 2명을 토의절차를 거쳐 선정함.

3) 평가기준

(1) 경기도의원(100점 만점)

가) 정량평가(70점)

① 개인 일반(총 30점)

- 참여성실(10점) : 출석 및 지각 등
- 태도진지(10점) : 감사에 임하는 적극적 자세(보드판, 사진 등 준비성 파악)
- 공익대표(10점) : 특정 정당이나 지역구 대변이 아닌 도민의 알권리 대변 여부

② 개인별 전문성(총 40점)

- 사전분석(10점) : 집행부의 자료 제출된 내용을 사전에 제대로 분석했는지
- 질의수준(10점) : 중복성, 전시성, 부적절 발언했는지
- 피감기관 부문지식(10점) :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내용 파악 능력
- 정책 및 대안성(10점) : 실현가능한 조례, 예산 등 정책적 대안의 제시

나) 정성평가(30점)

· 모니터요원 방청보고서와 언론 보도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경기도정참여단의 합의로 배점

(2) 성 인지적 관점(총 15점 ~ - 5점) : 성 인지적 관점을 가지고 이를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3) 상임위원회(총평을 통해 상, 중, 하)

. 전체적으로 시간업무 및 충실성 / 의정참여단 방청에 호의적 여부 / 상임위원회 위원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역할분담과 적극적 자세 등 포괄적 내용

(4) 피감기관(총평으로 처리)

. 질의와 지적에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하는지 여부(근거와 자료 제시하는지, 제출 자료에 대한 지적을 받았는지)

. 질문에 충실한 답변을 하는지, 지적에 대해 책임 회피성 답변으로 일관하는지

. 타당한 지적에 대해 적극 수용하는지, 추후에 별도로 보고하겠다고 하는지

. 해당 업무에 대해 제대로 파악을 하고 있는지, 동문서답 등 나열식 설명만 하는지

6. 총평 및 한계

1) 총평 및 개선사항

(1) 의원 평가

○ 의원 개개인의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기술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존재하여 평가 지표에 대해 포괄적으로 평가내용을 기술하였음을 밝힘.

○ 이번 의원 평가에 대해 우리는 경기도의회 의원들의 열성적이고 적극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수의원을 선정하기로 한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전체 의원에 대한 평가점수를 당초 계획대로 공개하지 않기로 함.

○ 그러나 이번 방청활동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대부분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했다하더라도 전혀 준비하지 않는 심각한 함량미달의 의원도 상당수 있어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문제의원을 선정할 필요성도 내부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여 향후 문제의원에 대해 워스트 의원으로 공표하는 것도 전향적으로 검토할 예정임.

○ 각 지표별 평가 내용

① 참여성실

- 제7대 도의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결석이나 잦은 이석은 상당히 줄어든 것은 명확한 사실임.

- 일부 상임위원회는 오전 9시에 시작하고, 전날 숙소를 잡아두고 행감을 준비하며, 저녁 늦게까지 진행하는 등 성실하게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기도 함.

- 하지만 여전히 일부 상임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시작인 10시 정시에 시작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점심 이후 오후의 시작도 제때 시작되지 않는 것은 문제로 평가됨.

- 매일 상임위원회 별로 여전히 결석하거나 지각하는 의원도 상당수 있고 오전에 참여하지 않다가 행정사무감사 끝날 무렵 자신의 질의시간에만 맞춰오는 의원도 있어 성실성면에서 기본이 되지 않는 의원이 존재함.

- 의원들의 자리 이석과 관련해서도 화장실이나 자료준비를 위한 이석으로 행정사무감사의 연장으로 감안할 수 있지만 오전 내내 자리를 지키지 않거나 자신의 질의 후 자리를 비우는 경우가 있어 심각한 문제로 파악됨.

- 특히나, 일부 재선의원 등 다선의원의 경우 결석하거나 전혀 준비하지 않아도 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 개선이 필요하고, 올해 행정사무감사도 결석, 잦은 이석은 여전히 고질적인 문제로 등장하여 이에 대한 최소한의 대책이 요구됨(의회차원의 패널티 적용 필요)

② 태도진지

- 몇몇 의원은 사진자료는 물론 ppt, 동영상 자료 등을 동원하여 사전 감사준비를 철저히 준비한 의원도 있어 돋보이는 행정사무감사 활동도 발견되는 등 대부분의 상임위원회가 적극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분위기였음.(선거당선이후 첫 행정사무감사라는 점과 여소야대 이후 경기도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역할을 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작용한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여전히 상당수 의원은 사전 준비가 미비하고 의례적인 준비에 머무르는 경우가 있었음.

- 피감기관에 설득적이고 실제적인 시정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발췌할 수 없는 사전 준비가 철저히 필요하여 단순한 질의만이 아닌 입체적인 자료 준비가 필요함.

③ 공익의 대표성

- 도의원이 정치인으로 지역민에 대한 이해와 요구에 부응해야 할 필요는 있으나 일부 의원의 경우 자신의 지역구에 국한된 민원성 질의에 머물고 있어 경기도민의 이해와 요구에 기반한 전체적인 시각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음.

④ 자료분석

- 요청한 자료에 대한 미비하고 축박한 자료제출 그리고 방대한 자료, 자료분석 인력지원이 없는 등으로 인해 의원 개인적으로 충분한 분석의 어려움도 존재하지만 그렇다하더라도 기초적인 피감기관에서 제출한 자료분석에 소홀한 측면이 없지 않음.

- 이로인해 질의수준이 현격하게 떨어지거나 충실한 질의가 아닌 통계수치에 대한 단답형 질문형식으로 제출한 자료내용의 사실관계 확인으로 질의시간을 허비하는 경우가 나타남.

⑤ 질의수준

- 아래의 내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신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1. 신문요지서의 범위를 벗어나는 신문, 2. 위협적이고 모욕적인 신문, 3. 정당한 이유가 없는 중복신문, 4. 단순히 의견을 묻거나 의논에 해당하는 신문, 5. 특정인의 사생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한 신문, 6. 증인의 양심의 자유와 정치적·종교적 신조에 관한 신문 등

- 신문 기법의 일환으로 증인들을 자극하여 문제를 시인하려는 방법으로 다양한 신문방식을 채택할 수도 있다고 판단되지만 일부 의원은 중복발언으로 본질을 피해가는 불필요한 질문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경우도 발생함.

- 행정사무감사가 집행기관에 대한 단순한 비판과 질타가 목적이 아닌 것은 사실이나 일부의원은 질의 내내 집행기관에 대한 온정주의 질의형태로 일관하는 경우도 나타남.

- 일부의원의 경우는 시간적 제약으로 인한 것인지 집행부의 답변도 들으려 하지 않고 자신이 준비한 내용을 질의하기 바빠 집중적이고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는 질의를 보여주지 못한 아쉬움이 있음.

- 하지만 전체적으로 질의수준은 예년에 비해 월등히 우수한 측면을 발견할 수 있음.

⑥ 피감기관의 부문지식

- 62지방선거 이후 5개월만에 진행되는 첫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집행기관 등 피감기관을 파악하는데 다소 물리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있지만 최소한 피감기관에 대한 업무 파악을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임.

- 그러나 일부의원들은 실, 국은 물론 관련 과의 업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다른 부서와 관련된 질의나 엉뚱한 질의를 해 오히려 집행부로부터 핀잔을 받기도 함.

⑦ 정책 및 대안성

- 대안 없이 문제점만 지적하는 경우가 많았고, 대안을 제시할 때도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제시가 아닌 추상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예산조치나, 법령의 개선, 정책방향등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감사 이후에 문제가 실제로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은 여전히 부족함.

- 특히, 국제보트쇼, 도민안방 및 전철, GTX, 무한돌봄, 도 홍보성 사업 등 경기도정에 대한 주요현안에 대한 지적은 모든 상임위원회에서 제기되었으나, 여전히 대안을 도출하는데는 역부족이었거나 집중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등 전체적으로 정책적 대안제시에서는 부족한 행정사무감사이었음.

- 더구나 지난 62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다수당이 되어 그동안 한나라당 다수의원의 포진으로 집행기관에 대한 제대로 된 견제와 감시 기능이 약화된 측면이 있어 이번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기대가 많았으나 기대에는 다소 못미친다는 의견이 존재함.

(2) 성인지적 관점

○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있게 평가했던 부분으로 문제가 있는 발언이나 인식은 나타나지 않았음.

○ 하지만 가족여성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를 제외한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는 양성평등 관련한 질의나 문제가 제기되고 성별영향평가제, 성인지적 예산,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문제 등 성인지적 관점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곳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척박한 수준임.

○ 차후에 경기도의회나 교섭단체 차원에서 도의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 관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등이 요구됨.

(3) 상임위원회 평가

○ 전체적으로 제8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첫 번째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로 도의원들이 열심히 하려는 의욕적인 모습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음.

○ 하지만 제한된 시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위원 서로간의 역할을 조정하는 등 유기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데도 제한된 시간을 효과적으로 활용해서 행정사무감사의 집중도를 높이려는 모습은 다소 부족했음.

○ 대부분의 상임위원회는 도민의 방청활동 사실을 고지하는 등 방청활동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로 안정감 있게 방청활동을 진행하는데 도움을 주었음.

○ 특히, 가족여성위원회는 전체적으로 시간엄수 및 행정사무감사 준비의 충실성, 도민 방청에 호의적인 태도 그리고 위원들 간의 상호 유기적인 역할분담 등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고 성실한 행정사무감사에 임한 것으로 평가됨.

(4) 집행부 등 피감기관의 평가

○ 예년에 비해 도의원들의 적극성은 높아졌지만, 여전히 집행부 등 피감기관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태도는 전혀 달라지지 않았음.

○ 여전히 전체적인 분위기는 행정사무감사 10일 동안만 피하고 보자는 식으로 연례적인 행사정도로 치부하는 등 공무원들의 안일한 행정사무감사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상임.

○ 의원들의 통상적이고 의례적인 자료제출도 문제이지만 자료제출에 대해 미온적이거나 전혀 엉뚱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 매년 자료제출로 논란이 끊이지 않아 개선이 필요함.(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저해하고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초래하고 있음)

○ 모든 상임위원회 마다 매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되는 내용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예, 관행적인 수의계약, 회의비 부당지급, 해외 출장 경비 과다지급, 각종 위원회 부실운영, 성과금 부당지급 등)

(5) 개선사항

○ 행정사무감사 전반적인 사항

- 1년 동안의 방대한 경기도정의 행정감사를 10일 동안 진행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어 상시적인 감사시스템을 도입할 필요성이 있음.

- 행정사무감사의 가장 기본인 성실도에서 출결상황과 장기간 이석 등 고질적인 문제의 시정을 위해 각 정당의 자체 결의와 패널티 적용 등의 적극적인 고려가 필요함.(자체 변화가 없을 경우 도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도민에게 모두 공개를 검토할 예정임)

- 보좌기능의 미비 등으로 정책감사의 어려움이 있어 행정사무감사 전에 전문성 있는 시민단체들 간의 협력적 감사준비를 제도화가 필요함.

- 행정사무감사의 질의방식도 상임위원회 마다 각각 다르고, 제한 시간에서 본질문 1회, 보충 1회, 추가질문 1회 등으로 적절하고 효과적인 질의를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효과적인 질의방식과 방법의 변화가 필요함.

-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사전 연찬회 등 사전교육의 내실화를 통한 감사능력 배양이 필요함.

○ 시민단체 방청활동에 대한 사항

-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청활동과 평가를 위해서는 의원들이 집행부에 요청한 자료를 방청단에게 사전에 배포할 필요가 있음.

- 행정사무감사 전에 의회 사무처와의 방청협조를 사전에 조율하고 각 상임위원장과 의 간담회를 통해 효과적인 행정사무감사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필요함.

- 향후 경기도민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방청활동과 평가에 대한 긍정적 측면을 고려하여 도민의 일상적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2) 평가의 한계

○ 이번 의원 평가는 의원의 1년 또는 현재 임기까지 전체적인 의정 평가가 아니라 2010년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기간의 활동에 국한한 평가임.

○ 전체 행정사무감사 일정 중 70%에 가까운 기간을 방청하여 평가한 내용이지만 모든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방청활동을 하지 않아 다소 한계가 있음.

○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저녁 늦게 까지 이어진 경우 모두 방청하지 않은 부분이 있음.